

“고달픈 국민의 삶, 이제 끝낼 때”

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회, 닳을 올린다!

- 6일(오후 2시) 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회’ 발대식 <이광재TV>, <시사타파TV>에 영상 공개
- 디지털경제, 휴먼경제, 그린경제, 메타정부 분야 총 열 가지 정책 제안… 향후 현장방문하며 구체화 예정
- 이광재 미래경제위원장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국민과 국가가 모두 잘사는 ‘삶의 질 1등 국가’ … 정책역량 제대로 보여줄 것”

대선까지 9주가량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회가 본격적인 정책 승부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의 민생·경제 행보에 발맞춰 민주당 선대위 후보직속 미래경제위원회(위원장 : 이광재)가 6일 출범을 알렸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새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미래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미래경제위는 ‘국민 삶의 질 높이기’에 초점을 두고 대한민국 미래경제 구상을 그렸다. 이광재 위원장(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고달픈 삶에 지친 국민들께 미래를 꿈꿀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결국, 다시 경제다. 먹고사는 문제는 미래경제위가 확실히 책임지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4일 민주당사 4층에서 열린 미래경제위 발대식은 이 같은 포부를 알리는 자리였다. 6일 <이광재TV> 및 <시사타파TV>에 공개된 영상에서 이광재 위원장을 포함한 미래경제위 위원들은 ‘10대 도전과제’를 제안했다. 각 과제별로 전문가 위원들이 문제의식을 밝히고, 담당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발표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미래경제위가 제안한 주요 정책은 크게 △디지털경제 △휴먼경제 △그린경제 △메타

정부 네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디지털경제, 휴먼경제 부문의 비중이 컸다.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대학도시’,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등이 눈에 띈다. 미래경제위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일자리, 주거, 교육·보육 문제 해결에 방점을 뒀음을 보여준다.

그린경제, 메타정부 부문에선 국민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봤다. ‘도심 하천 수변공원 조성’, ‘AI 민원플랫폼’ 등 정책 제안이 대표적이다.

미래경제위는 남은 대선기간 주요 제안정책을 중심으로 전국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경기북부나 강원지역에서는 군부지 혁신기업도시 조성을 제안하고, 부지가 넓은 캠퍼스를 방문해 대학도시의 필요성을 알리며, 낙동강 등 지방하천을 방문해 수변공원 조성을 이슈화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정책홍보 후, 구체적 공약으로 다듬어지면 후보가 발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광재 위원장은 “그동안 GDP 중심의 성장전략에 몰두한 결과,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의 삶은 어려워지는 모순이 생겼다”라며 “국민의 불안요인을 줄이고 기회요인을 늘리는 민생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국민들은 결국 ‘누가 실질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투표하실 것”이라고 향후 대선을 전망하며, “미래경제위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국가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제 정책의 시간이 왔다”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22.1.4 미래경제위원회 발대식 개요

※ [첨부] 미래경제위원회 발대식 개요(2022.1.4 개최)

미래경제위원회 발대식 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021년 1월 4일 (화) 오전 10:00 ~ 11:00
- 장 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대회의실 (4층)
- 취 지 : 고달픈 삶을 사는 국민들께 ‘사람답게 사는 삶의 질 1등국가’ 라는 미래경제위원회의 비전 제시
- 참 석 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광재 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 맹성규 · 박상혁 · 송기현 · 송옥주 · 오기형 · 이정문 · 임호선 · 정일영 · 허영 수석부위원장(가나다순), 민기영前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정책자문단(교수진)
- 주요내용 : 국민 ‘불안요소’ 는 줄이고, ‘기회요인’ 늘려 개인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위한 10대 도전과제를 제안

〈 10대 도전과제 : 전문가가 짚고 국회의원이 함께합니다 〉

구분	주 제	전문가가 짚고	국회의원이 함께합니다
디 지 털 경 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한다?	정은혜 (前)국회의원, 국민대 교수	이광재 위원장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대학, 대학도시-일자리 산실로, 창업의 메카로	김세용 교수 (前SH공사 사장, 고려대학교 교수)	국회의원 송기현
	군부대 나간 자리 3천만평에 아파트만 짓고 말 건가요?	김선주 교수 (경기대학교 교수)	국회의원 김병주
	매년 쌓이는 포인트가 20조라는데 내 포인트는 어디에 있나요?	김윤이 대표 (뉴로어소시에이츠)	국회의원 오기형
휴 먼 경 제	청약저축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 이대로 뒤도 괜찮을까요?	정성훈 교수 (대구가톨릭대)	국회의원 허 영 국회의원 박상혁
	국민재산 5000조원, 1인당 1억원 국민은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요?	정창수 소장 (나라살림연구소)	국회의원 정일영
	언제쯤이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이강이 (20대 워킹맘)	국회의원 맹성규
그 린 경 제	하천이 흐르는 숲세권, 도심에도 가능할까요?	박창근 교수 (가톨릭관동대, 대한하천학회 회장)	국회의원 송옥주
메 타 정 부	국민의 제안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게 합시다!	지영림 대표 (닥터호민관)	국회의원 이정문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중앙정부	전상헌 위원장 (경산시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임호선 前국회의원 홍익락